

# 2023학년도 건국대학교 수시모집 논술고사 문제지

## 인문사회계 I

1. 시험 시간은 09:20~11:00 (100분)입니다.
2. 제목은 쓰지 말고 본문부터 쓰기 시작합니다.
3. 답안 작성 시 문항번호와 답안번호를 대조하여, 일치하는 답안란에 작성해야 합니다.
4. 답안은 어문 규범과 원고지 사용 규칙을 따라 작성하되, 분량은 각 문제에서 요구하는 글자 수 이내로 작성해야 합니다. [\* 글자 수를 초과하거나 미달한 답안은 감점 처리함.]
5. 답안지상의 수험번호 및 생년월일은 반드시 컴퓨터용 사인펜을 사용하여 표기해야 합니다.
6. 답안지상의 수험번호 및 생년월일은 수정이 불가하며, 수정해야 할 경우 반드시 답안지를 교환해야 합니다.
7. 답안 작성 시에는 반드시 검정색 필기구(연필, 샤프, 검정색 볼펜)만을 사용해야 하며, 다른 색의 필기구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 검정색 이외의 색 필기구로 작성한 답안은 최하점 처리함.]
8. 답안 작성 및 수정 시에는 개인이 지참한 검정색 필기구, 지우개, 수정테이프 사용이 가능합니다.
9. 문제와 관계없는 불필요한 내용이나 자신의 신분을 드러내는 내용이 있는 답안, 낙서 또는 표식이 있는 답안은 모두 최하점으로 처리합니다.

시험이 시작되기 전에는 표지를 넘기지 마십시오.

# 인문사회계 I

※ [문제 1]: [가]와 [나]를 참고하여 [다]의 도표를 분석하십시오. (401-600자) [40점]

※ [문제 2]: [가]와 [나]의 관점을 반영하여 [라]의 인물 간 관계 양상을 논하십시오. (801-1,000자) [60점]

## [가]

우리 라코타족 원주민들에게는 모든 생명체가 인격을 갖추고 있었다. 오직 모습만 우리와 다를 뿐이었다. 모든 존재 속에 지혜가 전수되었다. 세상은 거대한 도서관이었으며, 그 속의 책들이란 돌과 나뭇잎, 풀, 실개천, 새와 들짐승들이었다. 그들은 우리와 마찬가지로 대지의 성난 바람과 부드러운 촉박을 나눠가졌다. 자연의 학생만이 배울 수 있는 것을 우리는 배웠으며, 그것은 바로 아름다움을 느끼는 일이었다. 우리는 결코 폭풍이나 난폭한 바람, 차가운 서리와 폭설에 악담을 퍼붓지 않았다. 그렇게 하는 것은 인간의 어리석음을 드러내는 일에 지나지 않았다. 무엇이 우리 앞에 닥쳐오든지 우리는 필요하다면 더 많은 노력과 힘으로 우리 자신을 적응시켰다. 하지만 불평하지 않았다.

오직 얼굴 흰 사람들의 눈에만 자연이 '야생'으로 보인다. 오직 그들에게만 이 대지가 야생 동물들과 야만인들이 때 지어 물려다니는 곳으로 여겨진다. 우리 원주민들에게 자연은 길들어 있는 온순한 것이었다. 대지는 기쁘고, 우리는 위대한 신비가 내려 주는 가득한 축복 속에 있었다. 동쪽으로부터 털 많은 사람들이 와서 우리와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자매들에게 수많은 불의를 저질렀을 때, 우리에게는 그것이야말로 야만적인 일이었다. 얼굴 흰 사람들이 다가가지 동물들은 달아나기 시작했고, 그때부터 무법천지의 시대가 시작된 것이다.

아메리카 원주민은 흠과 하나다. 그곳이 숲이든, 평원이든, 고원이든, 인디언은 그 풍경과 하나다. 왜냐하면, 이 대륙을 만든 손이 그곳에 사는 인간도 만들었기 때문이다. 아메리카 원주민은 야생 해바라기처럼 자연스럽게 성장했으며, 들소처럼 자연에 속한 존재였다.

- 고등학교 『독서』

## [나]

움직임의 속도, 이는 단지 행동의 속도만을 뜻하지는 않는다. 우리가 맨눈으로는 꽃이 피는 것을 보지 못하는 꽃 피는 속도와 우리 시각의 속도 간의 간극 때문이다. 시각뿐 아니라 생각도 속도를 갖는다. 시각이나 발걸음보다 생각의 속도는 훨씬 더 편차가 크다.

함께 산다는 것은 속도를 맞추어 사는 것이다. 걸음걸이의 속도를 맞추지 않고서는 함께 걸을 수 없는 것처럼, 속도를 맞추지 않고서는 함께 행동할 수 없고, 함께 대화할 수 없으며, 함께 생활할 수 없다. 물론 속도를 맞추는 것이 숫자로 표시되는 어떤 크기를 같은 값이 되게 만드는 것은 아니다. 각자의 신체와 영혼마다 각기 다른 속도가 있기에, 그것을 어느 하나에 일치시키려 한다면 '일치'는 자기 속도에 대한 억압이 된다. (중략)

속도를 맞추는 것은 리듬을 맞추는 것이다. 몸의 리듬, 영혼의 리듬, 말의 리듬, 생각의 리듬……. 리듬은 박자와 달라서, 하나의 박자 안에서 다른 속도의 움직임에 허용한다. 다른 속도를 갖는 것들이 하나처럼 움직일 수 있게 해 주는 것, 그것이 리듬이다. 오케스트라의 악기들이 교향곡의 같은 소절을 연주할 때 현과 목관, 금관, 타악기는 각각 다른 속도로 연주하지만 하나의 리듬을 형성한다. 하나의 소리 안에 상이한 속도들이 공존하고, 느린 속도와 빠른 속도가 하나의 박자 안에서 일치할 수 있는 것이다. 리듬을 맞추는 것은 허용되는 차이 안에서 서로에게 속도를 맞추어 응답하는 것이다. 역으로, 응답하는 능력이란 리듬을 맞추는 능력이다. 리듬을 놓치면, 타이밍을 놓치면, 응답은 응답이 아닌 것이 된다.

누구도 혼자 사는 법은 없기에, 산다는 것은 언제나 살면서 만나는 이웃과 리듬을 맞추는 것이다. 농부는 대지의 변화에, 소와 비의 움직임에 리듬을 맞추어야 하고, 노동자는 벨트 컨베이어의 속도에 신체의 속도를 맞추어야 한다. 속도에는 허용되는 리듬의 차이가 큰, 여유 있는 속도가 있고, 그게 아주 작은, 조금하고 딱딱한 속도가 있다. 그렇기에 속도와 리듬은 삶의 단면이다. 나의 속도는 내가 어떻게 사는지를 보여 준다. 즉, 나에게 요구되는 속도는 내가 어떤 세상에 사는지를 보여 주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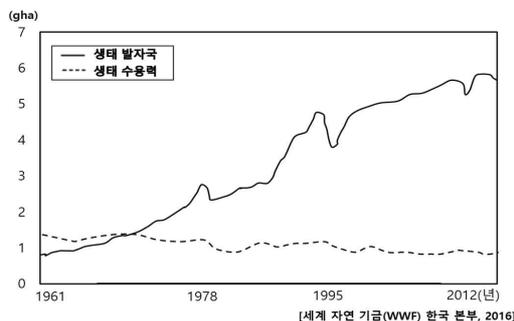
- 고등학교 『독서』

## [다]

[도표 1] 다양한 지수로 본 한국

지표	순위	참고
인간개발(2014년) (수명, 건강, 생활수준, 지식 접근성)	인간개발 지수	17위 -노르웨이(1위), 오스트레일리아(2위), 네덜란드(5위)
	불평등 조정 인간개발 지수	36위 -노르웨이(1위), 네덜란드(2위), 오스트레일리아(4위)
긍정적 경험(2015년) (일상 속 행복감)	118위	-143개국 중 -파라과이(1위), 콜롬비아-에라도르(2위)
어린이·청소년의 행복(2016년)	물질적 행복지수	3위 -OECD 20개국 기준 -핀란드(1위), 덴마크(2위), 독일(4위)
	주관적 행복지수	22위 -OECD 22개국 기준 -에스파냐(1위), 스위스·오스트리아(2위), 덴마크(4위)
환경 성과 지수(2016년)	80위	-180개국 중 -핀란드(1위), 아이슬란드(2위), 덴마크(4위)

[도표 2] 한국의 1인당 생태 발자국과 생태 수용력



\* 생태 발자국: 인간이 소비하는 자원과 서비스를 생산하고 폐기물을 처리하는 데 필요한 땅의 면적.  
\* 생태 수용력: 지구가 인간이 소비하는 자원과 서비스를 끊임없이 재생산하는 공간.

- 고등학교 『통합사회』

## 인문사회계 I

## [라]

자그마한 여행 가방 하나를 들고 처음 집 안으로 들어서던 날의 여자 모습이 떠오른다. 초가을이었다. 마당에는 가을비에 떨어져 내린 풋감이 데굴데굴 굴러다녔다. 여자는 두 손을 모으고 정중히 허리를 굽혔다. 태국말로 와이\*라 부르는 인사법이었다.

내 이름은 능 르타이입니다.

여자 목소리가 가까워서 들리는 것 같다. 말끝을 경쾌하게 추켜올리는 특유의 말투다. 그 말투는 언제나 사원의 처마 끝을 연상케 한다. 하늘을 향해 치솟은 섬세한 황금 장식……. 에메랄드라는 이름이 붙은 태국 사원을 나는 여자 앞으로 가끔 배달되던 그림엽서에서 처음 보았다. 방콕 왕궁 안에 있다는 그 사원은 매우 화려하고 아름다웠다. 엽서엔 뜻을 전혀 알 수 없는 글자가 빼곡했다. 단정한 필치의 태국 문자는 일년생 풀과 꽃이 심긴 화분을 일렬로 세워 놓은 다음 옆에서 그대로 그려 놓은 펜화처럼 보였다. 우편함에서 꺼내 온 여러 개의 우편물 중에서 그 엽서를 찾아내 건네주자 여자가 몹시 기뻐하며 내게 수없이 와이\*를 했다. 난 여자의 와이\*에 대해 묻지 않았다. 이제 와 생각하니 나는 여자의 와이\*에 한번도 제대로 답을 준 적이 없었다. 처음엔 낯설어서, 나중에 여자를 무시하려고 일부러 그랬다. 하지만 여자는 몸에 밴 와이\* 인사 습관을 버리지 못했다. 두 손을 모으다가는 화들짝 놀라 다시 손을 내려놓곤 했다. 그날, 엽서를 받자마자 읽어 내려가던 여자 표정이 생각난다.

사원의 종소리가 조용히 아자나무 숲을 흔드는 고향 풍경이 머릿속으로 펼쳐지기도 한 걸까. 여자의 입가에 얇은 미소가 어리고 양쪽 뺨은 발그레해졌다. 글썽이는 여자의 크고 둥근 눈이 한 쌍의 은빛 물고기처럼 빛났다. 마침 고모가 쌍둥이를 태운 유모차를 끌고 마당으로 들어섰다. 여자는 당황한 표정으로 허둥대며 손에 들고 있던 엽서를 앞치마 안으로 숨겼다. 눈치 빠른 고모가 여자의 앞치마를 들춰다. 무슨 비밀이라도 되나 보지? 이리 쫓아. 고모 눈초리가 심하게 외돌았다. 쫓쫓, 이게 글자야 별래야, 뭐가 뭔지 통 모르겠네. 엽서를 빼앗아 한참을 들여다보던 고모는 안절부절못하는 여자에게 내던지듯 되돌려 주며 강하게 쏘아붙였다. 자네, 우리 모르게 수작 부리다간 큰코다쳐.

여자는 고모 말뜻을 알아차린 것처럼 보였다. 그즈음 여자의 한국어 실력은 고작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정도여서 수작이라든가 큰코다친다는 말을 알아들을 리 없었을 텐데도, 여자는 두려움으로 가득 찬 눈을 조용히 내리뜨며 바르르 몸을 떨었다.

## (중략)

처음부터 고모는 여자를 믿지 못했다. 고모가 여자를 의심하는 데는 이유가 있었는데, 그건 여자가 돈을 벌기 위해 아버지한테 시집은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이었다. 아버지는 매달 여자네 집으로 얼마의 돈을 부쳤다. 그 돈으로 여자네 병든 어머니와 사업 실패로 알거지가 된 아버지, 그리고 어린 동생들이 먹고산다고 했다. 그런 고모의 속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여자는 자주 고모한테 말했다. 태풍 때문에 강이 뒤집혔어요. 내 아버지 양어장, 홍수에 쓸려 나갔어요. 우리 집 팬잡았는데, 가난해졌어요. 우리 식구 살기 힘들어요. 그래서 나 시집왔어요. 나 아저씨 좋아요. 나 술집에서 일한 적 없어요. 여자는 한국말을 꽤 빨리 배웠다. 말끝을 추켜올리는 이상한 억양도 많이 누그러졌고, 피부도 한결 하얘졌다. 그럴수록 고모는 여자를 더 경계했다. 고모는 여자를 집 밖에 나가지 못하게 했다. 집 근처 가게에서 물건을 사는 것 말고는 거의 아무 데도 가지 못하게 했다. 아버지 수발이나 열심히 들면 된다고 했다. 하지만 여자는 점차 바깥 구경을 하고 싶어 했다. 가끔 알아들을 수 없는 태국 말을 내뱉곤 했다. 나중에 알게 되었지만 “나는 아자 껍질 속 지렁이로 살고 싶지 않아요.”라는 뜻이었다. 하긴 아자 껍질 속에서만 살기에는 너무 젊었다. 여자는 가끔 아버지 산책을 핑계로 역 근처 대형 할인점까지 가기도 했고, 피시방이며 노래방, 술집이 즐비한 골목을 지나다니기도 했다. 호기심 가득한 여자는 가끔 아버지를 완전히 잊고 휠체어를 끌다 몇 차례 장애물에 부딪히기도 했다. 아버지 이마에 특 튀어나온 혹을 본 고모는 목소리 높여 여자를 나무랐다.

여자가 시집은 지 2년쯤 지났을 때다. 아버지는 저녁이면 여자를 앉혀 놓고 한글을 가르치기 시작했다. 마치 재미있는 놀이를 하나 찾아낸 것처럼 아버지는 그 일에 열중했다. 저녁에 학원에서 돌아와 현관에 들어서면 아버지와 여자가 거실에 퍼 놓은 두리반\* 앞에서 머리를 맞댄 채 쿡쿡거리며 웃기도 했고, 한글 카드로 알아맞히기 게임이나 받아쓰기를 하기도 했다. 어릴 땐 태국 쌀국수를 끓여 밤참으로 먹었다. 젊은 배우들이 출연해 사랑을 키워 가는 드라마를 가까이 붙어 앉아 보기도 했다. 아버지는 더 이상 종일 내가 돌아오기만 기다리던 예전의 아버지가 아니었다. 여자와 함께 새로운 행복을 키워 가는 듯 보였다.

\* 중간 부분 줄거리 : 외국에서 온 동네의 색시들이 돈을 훔쳐 달아났다는 이야기를 들은 고모는 여자(능 르타이) 또한 그럴까 봐 의심한다. 여자는 고모에게 자신은 남편(나의 아버지)을 사랑하기에 도망가지 않을 거라 말한다. 그러던 어느 날 밤에 ‘나’는 여자의 방에서 누군가의 그림자를 보게 되고, 얼마 뒤 기차역 근처에서 여자가 동남아시아 사내와 이야기하는 장면을 휴대 전화로 찍게 된다. 사진을 본 고모는 아버지가 말리는 것을 무시하고 펠쩍 뛰면서 여자를 잡아 흔들며 차서 넘어뜨린다. 여자는 고향 사람 만난 것이 죄냐고, 당신네 사람들 이상하다고 울부짖으며 항변한다. 싸움을 말리던 아버지는 병세가 악화되어 병원으로 실려간다. 그리고 여자는 임신으로 입덧을 시작한다. 고모는 집안 망신 난다며 낙태하라고 압박하지만 여자는 그러면 죽어서 부처님 앞에 못 간다며 배를 감싸고 눈물로 저항한다.

늦여름의 더위마저 물러난 어느 날이었다. 새벽녘에 이슬이 비친 여자는 한밤중에 가서 아기를 낳았다. 아들이었다. 내가 두려워하던 모든 일들이 하나둘 현실이 되어 갔다. 나는 점점 더 평범하지 않은 아이가 되어 갔다. 친어머니는 죽고 아버지는 불구자이며 외국인 계모를 두었다. 그것도 모자라 이제 혼혈 이복 동생이 생겼다.

힘들게 목숨을 지켜 준 생모의 고난을 위로하려는 듯이 아기는 잔병치레 없이 잘 자랐다. 여자가 푸념 반, 농담 반으로 말했다. 우리 아기가 망고 나무 아기사라서 그래요. 여자는 태국에서 가져온, 전통 그림이 실린 책을 펼쳐 보여 주었다. 커다란 망고 나무 가지에 마치 가지나 오이처럼 정수리에 꽃받침을 가진 사람이 매달려 있는 그림이었다. 이것 봐요. 우리 태국에서는 망고 나무에서 아기가 주렁주렁 열려요. 고모와 나는 여자 말을 듣고 웃지 않을 수 없었다. 우리 수동이는 아버지가 망고 나무라서 병 없이 오래오래 잘 살 거예요. 두고 보세요. 아주 훌륭하게 잘 자랄 테니까요.

아기는 하루가 다르게 성장해 갔다. 하지만 그보다 더 빨리 아버지의 생명이 사그라졌다. 아버지가 마지막 숨을 거둔 건 아기가 첫돌을 맞이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였다. 첫서리가 하얗게 내려앉은 새벽이었다. 여자의 울음소리는 얼어붙은 대기를 찢으며 멀리멀리 퍼져 나갔다.

## 인문사회계 I

아버지의 죽음으로 여자와 나의 인연은 낡은 실밥처럼 약해졌다. 아버지의 연금도 줄어 나와 여자, 아기가 나누어 쓰기에 터무니없이 부족했다. 나는 대학 등록금을 걱정했고, 여자는 친정 식구들에게 돈을 보내지 못해 늘 안타까워했다. 여자가 끝내 아기를 데리고 전라도에 사는 친구가 다니는 공장에 들어가 일하겠다고 보따리를 싸다. 아기는 두고 가. 내가 어떻게든 키워 볼 테니. 영문도 모른 채 눈웃음 짓는 아기 얼굴을 바라보던 고모가 힘없이 말했다. 쌍둥이에 둘러싸인 고모는 몇 년 새 부쩍 늙어 보였다. 여자가 고개를 살래살래 흔들며 말했다. 말끝을 울리는 버릇이 조금 남아 집짓 명랑하게 들렸다. 고맙지만, 얼마 있다가 친정으로 보낼 거예요. 거기 가면 아기 봐 줄 동생들이 있으니까. 여자는 수국이 푸르게 피어 있는 마당을 가로질러 대문 밖으로 걸어 나갔다. 긴 겨울이 끝나고 아지랑이가 들녘을 가득 채우는 이른 봄이었다. 그리고 그것이 내가 본 그녀의 마지막 모습이었다.

※ **중간 부분 줄거리** : ‘나’는 지금 슬픈 소식을 알리려 여자(능 르타이)의 고향인 태국 아우타야를 찾아가고 있는 중이다. 열차가 곧 역에 도착할 거라는 안내방송을 들으며 ‘나’는 여자에게 전해 주지 못했던 그녀 아버지의 편지를 꺼내서 펼쳐 든다. 한국어로 번역해서 간직해온 편지에는 태국의 축제 소식과 함께 먼 나라로 시집간 딸에 대한 걱정과 사랑의 마음이 절절히 담겨 있다. <라미아나> 속 시타 왕비 이야기를 하면서 딸의 미래를 축복하고 기원하는 내용도 들어 있다. 편지의 마지막에는 딸과 가족, 가까이 사는 이웃의 행운을 빈다는 말과 함께 ‘너를 사랑하는 아버지가’라는 글자가 씌어 있다. 편지를 보던 나는 다시 과거 회상에 잠겨든다.

고모와 나는 불길 속에서 처참한 최후를 맞이한 여자의 시신 앞에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임시로 마련한 상황실 너머로 보이는 사고 현장은 불에 탄 건물의 잔해에서 나오는 검은 연기와 사람들의 아우성, 일반인의 접근을 막으려는 경찰의 호각 소리로 아수라장이었다. 소방 시설이 전혀 되어 있지 않은 영세한 피혁 공장에서 난 불이라 손쓸 새 없이 어어, 하는 사이에 전소되고 말았다. 여자 손에 끼워져 있던 결혼반지만이 불길 속에서 살아남아 한낮의 태양 아래서 여전히 황금빛을 발했다. 여자의 마지막 비명처럼 그 빛은 내 가슴을 사납게 활궤었다. 몇몇 방송사 기자들이 여자의 시신을 카메라로 찍어 댔다. 고모는 카메라 앞에서 두 팔을 벌렸다. 그만 찍어요, 그만. 고모는 능 르타이가 이런 모습을 세상에 보이는 걸 원치 않으리라 생각한 듯했다. 여자는 아주 예쁘고 행복한 신부이고 싶었을 거다. 꽃가마배를 탄 아우타 공주만큼은 아니더라도 언제까지고 사랑받는 신부이기를…….

여자의 친정아버지 말대로라면, 그러니까 <라미아나> 이야기대로라면 여자는 아요디아의 왕비처럼 불길 속에서 어떻게든 살아남았어야 했다. 하지만 운명은 진실을 밝혀 주지 않은 채 여자를 데려가 버렸다. 부정한 여자인 탓일까. 아니면 왕비가 아니었기에 불의 신이 관심을 주지 않았던 걸까. 그렇다면 신들도 우리 인간과 다를 게 없단 말인가. 혼란스러운 생각이 머릿속에서 소용돌이쳤다.

어쩌면 여자의 운명은 처음부터 그리 정해져 있었는지 모른다. 여자는 아우타국의 공주처럼 황금과 시종, 쇠를 가득 실은 꽃가마배를 타고 이 땅에 오지 않았으니까. 낡고 조그만 가방 하나 들고 낯선 타국살이를 시작해야 하는 가난한 처녀였으니까.

‘아버지’라는 글자 위로 기어코 한 방울 눈물이 떨어져 얼룩진다. 글자와 글자 사이에서 연둣빛 싹이 돋아난다. 싹은 삼시간에 줄기를 키우고 가지를 만들어 무럭무럭 자라난다. 가지 끝에 꽃이 피었다 지더니 이윽고 생명체 하나가 부풀어 오른다. 오이나 수세미처럼 물방울이 땅 위로 떨어지려다 멈춘 모양새다. 나무 아버지의 갈등과 방향, 곤혹스러움이 차마 열매를 땅으로 떨어뜨리지 못하는 걸까. 이윽고 나무 아기가 까맣게 눈을 뜬다. 수동아, 나는 아기 이름을 낮게 불러 본다.

플랫폰으로 길게 미끄러져 들어간 열차가 오랜 흔들림을 멈춘다. 나는 책과 편지를 가방에 넣은 다음 열차에서 내린다. 점차 사위어 가는 해가 도시 전체를 부드러운 망고빛으로 감싸고 있다. 가슴이 뚫다. 여자의 친정으로 미리 연락을 취해 났으니 개찰구 밖에 아이가 나와 있을지 모르겠다. 여자의 예언대로 아이는 잘 자라고 있을까. 얼마나 자랐을까. 주홍색 꽃을 가득 단 오래된 나무 한 그루가 서 있는 역사 앞 광장으로 걸어간다. 나무 그늘 아래서 아이가 흠장난을 하고 있다. 아이 옆에는 부채를 든 노인이 앉아 있다. 능 르타이 사진을 가슴께에 붙인 나를 알아봤는지 노인은 자리에서 일어나 손짓한다. 아이는 나무 주위를 뱅글뱅글 돌며 장난친다. 까르륵 웃어 대는 아이 모습은 영락없는 나무 요정이다. (중략) 나는 아이를 반짝 안아 올린다. 수동아, 나 수경이 누냐야, 잘 지냈어? 낯선 손길에 놀란 아이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쳐다본다. 작고 작은 은빛 물고기 한 쌍, 찬란하게 빛을 발한다.

- 외아: 두 손을 모아 합장하는 인사. 불교식 인사법으로 바른 자세, 정중함, 예의가 중요하다.
- 두리반: 여럿이 둘러앉아 먹을 수 있는, 크고 둥근 상.
- <라미아나>: 고대 인도의 대서사시. 불교 국가에서 널리 읽힌다.

- 고등학교 『국어』

논술고사 문제의 저작권은 건국대학교에 있습니다. 상업적인 사용은 금합니다.